

제2차 남북정상회담

■ 광주·전남 주민 반응

“내친김에 상호 불가침 선언도”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8월28~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8일 전해지자,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들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치밀한 준비로 정상회담을 내실있게 열어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정착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대선을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려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 도출과 투명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임재완(57) 교수는 “북핵 불능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13’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중요한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의미가 크고 더욱 기대를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 광주·전남본부’(대표 김경길)는 이날 ‘이번 회담이 더욱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보장, 민족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문제 등을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전남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상임대표 광 민)도 성명을 내고 ‘상호 불가침 선언과 군비 감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 개성 공단과 경제특구 등 남북경제 협력의 포괄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문제

범정부 차원 준비로 회담 내실있게 투명하게 추진 정치적 오해 막아야

자주적 해결 ▲합의기관을 만들어 공동의 문제를 푸는 연합체 구성 ▲이산가족 교환 방문 ▲경제 협력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한 당국자 회담 등을 한 단계 진척시키자는 것이다. ‘5·18 유족회’(회장 정수만) 등 5월 단체들도 “민족 통일을 위해 이번 회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오수열(58) 교수는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회담이지만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야당 의견까지 폭넓게 수용해서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YMCA 남부원(48) 사무총장은 “남북 정상회담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해석을 넘어 민족의

미래에 관한 대의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평화통일, 민족 화합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김의태(34·광주 서구 유동)씨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제 1차 평양 정상회담 합의대로 답방 형식으로 서울에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정상회담의 서울-평양 교차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진 8일 광주 서구 관천동 유스퀘어(u-square)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시민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정치적인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한혜기자 choi@kwangju.co.kr

공적기금 부정대출 공무원 징역형

광주지법 선고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8일 공문서 등을 조작해 무자격자에게 공적기금을 대출해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이모(56·행정 6급)씨에 대해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문제의 대출금을 여수시에 환원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결과권자가 출장

중인 틈에 친분이 있는 무자격자에게 공적기금을 대출해 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14일 기초생활보장 사업자금 대에 대상자 실태조사 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아닌 사람에게 음식점 운영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가 대기업 공장장의 고교 후배”

취업 미끼 3천만원 챙긴 2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전직 인력 공급업체 사장 탁모(55·광주 서구 화동동)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해 6월 광주 서구 염주동 모 식당에서 임모(60)씨에게 아들(29)을 모 대기업 광주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앞선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행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탁씨는 “광주 공장장이 학교 선배”라며 회사 관계자와의 화연을 강조하며 임씨에게 접근, “공장장에게 취업을 확답받았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탁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은행 계좌 내역 및 공장장 관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짜 학위·학력 위조 사범

檢·警 수사 확대

검찰과 경찰이 ‘가짜 학위’ ‘학력 위조’ 등의 사범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은 9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학위·자격증·국내외 인증 등 3개 분야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위 등 교육·직업 및 문화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교육문화 분야는 ▲가짜 석·박사 학위 위조 및 매매 ▲석·박사 학위 사칭 취득 ▲논문 대필·표절 ▲성적 위조 ▲토익·토플 성적표 위조 ▲재직·경력 증명서 위조 ▲유명 화가 작품 위조 위조 등이다.

전문가 인증 분야에서는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사이버 의료·법률서비스 및 자격증 대·수수 ▲세무사·노무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위조 및 서비스 ▲자산운용전문가 등 민간기관

인증 자격증 위조와 부정발급 및 자격증 대·수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국내외 인증 분야의 경우 FDA(미국 식품의약국)·ISO(국제 표준화기구)·CE(유럽공동체품질인증) 등 해외 유력기관의 인증 위조·조작 및 이를 통한 판매·과장광고와 식약청 승인·GD(Good Design)·KS마크 등 국내 인증 위조·조작 및 판매·광고, 국내외 품질인증 부정 발급 및 컨설팅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범죄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번)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며, 지검 홈페이지에도 신고·접수 코너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도 9일부터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사들의 학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외국 대학 학위를 위조한 의혹이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졸업 여부를 조회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옥랑 동승아트 대표 학력 위조

단국대 조사 나서

단국대 교수인 김옥랑(여·62) 동승아트센터 대표의 학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국대 관계자는 7일 “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주임교수인 김 대표가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곳이 정상적인 학위를 줄 수 없는 미인가 학교로 드러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학사학위 취득학교로 적었던 미국의 퍼시픽웨스턴(Pacific Western)대는 미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어떠한 학위인 증기관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



김 대표는 성균관대에서 예술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단국대에 임

용됐으며 2004년에는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국내 예술경영학 박사 1호’라고 주장했었다.

KBS는 지난 7일 김 대표가 미인가 대학인 미국 퍼시픽웨스턴대 졸업장을 이용해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기도고 졸업·이화여대 재학 등의 학력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어장 현대화 보조금 횡령

해남군 어촌계장 입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장 현대화사업(해태 양식업) 추진과정에서 보조금을 부풀려 교부받아 일부를 횡령한 해남군 N 어촌계장 이모(61)씨를 보조금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서해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납품 계약서를 이종으로 작성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군에 제출, 보조금 4천 8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혐의다.

서해청은 보조금을 부정으로 교부받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납품자간에 리베이트가 오고 갔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이성희기자 lsh@

나원침 (7283) 김장동



Advertisement for KCC products including DS건설(주), KCC방호, 시스텔형호 생산·시공, and (주)본드나리.

상습 성폭행범 IP 추적으로 ‘덜미’



○올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강간치상 전과 10범이 또다시 체탕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를 성폭행했다가 IP 추적으로 덜미.

○8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K기업업체 직원 박모(24)씨는 지난달 16일 밤 11시30분께 인터넷 게임 사이트 ‘오디션’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를 성폭행했다가 IP 추적으로 덜미.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최근 3~4개월간 채팅을 통해 친해진 피해자들을 불러내 술을 먹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함께 집으로 가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며 유인했다고.

○경찰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박씨의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NIL AIRLINES featuring flight routes and promotional offers.

Large advertisement for MODIWA GALLERY featuring interior design and furniture.